

주요 노동동향

경제일반

◆ 2008년 4월 생산·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

○ 2008년 4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전기 장비, 음식료품, 선박 등의 호조로 1.0% 증가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10.5% 증가하였음.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반면, 투자는 2.0% 감소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하였음(전월대비 1.1% 증가, 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로는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5.9% 증가하였음(그림 2 참조).
- 4월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와 식료품, 의약품 등의 비내구재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부진과 의복 및 식물 등 준내구재 판매부진에 따라 0.2% 감소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4월	3/4	4/4	연간p	1/4p	3월p	4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6.2	6.0	11.0	6.8	10.5	10.1	10.5(1.0)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6.2	6.1	11.2	7.0	10.6	10.5	11.0(1.1)
	출하	9.7	9.0	9.2	3.8	7.8	5.1	7.2	7.3	5.5	10.6	7.1	8.8	8.7	8.6(0.4)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9.5	9.4	16.2	10.5	14.5	15.9	14.1(-2.0)
	내수	7.1	4.9	3.8	2.2	4.5	4.1	4.9	5.9	2.7	6.8	4.8	5.2	4.2	5.0(-2.1)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5.1	7.2	6.8	6.4	6.3	5.6	5.9(0.2)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4.0	7.1	4.5	5.3	3.9	4.4	5.8(-0.2)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15.6	0.7	9.2	8.6	-0.9	0.9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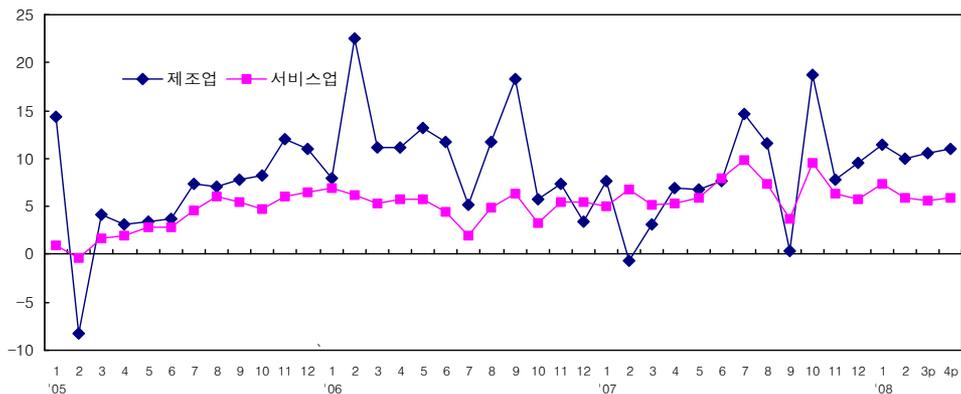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및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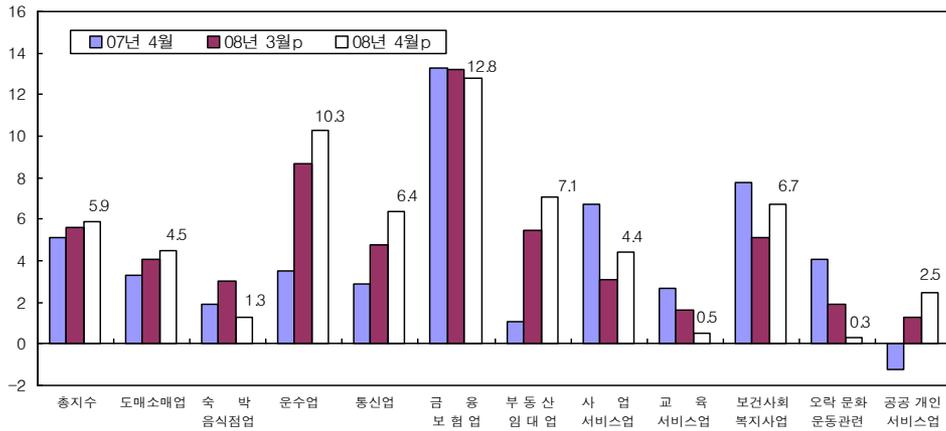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0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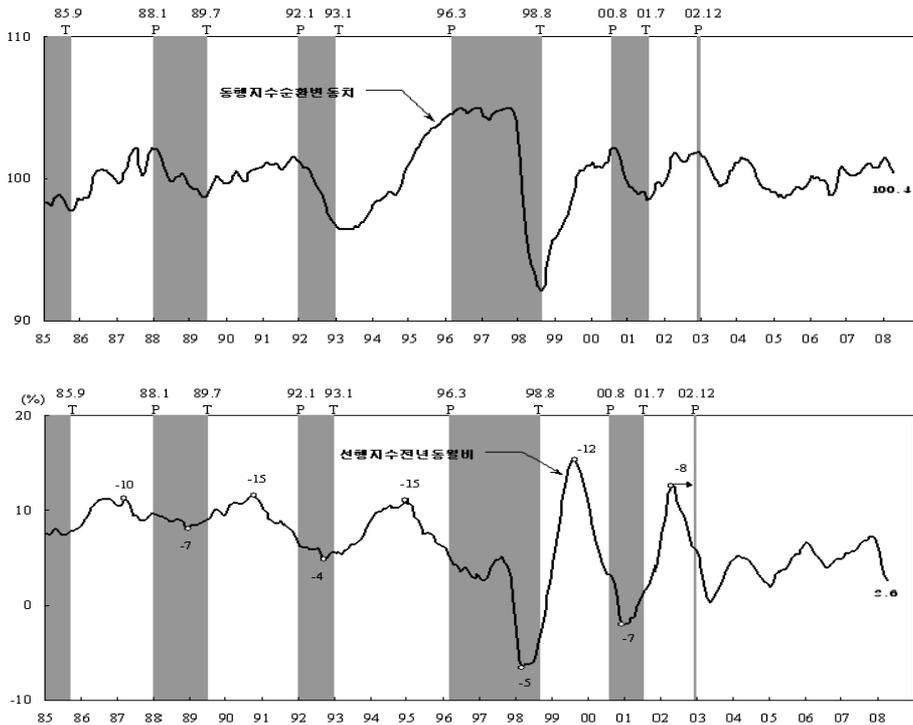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8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08. 5.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4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 명(0.7%)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71천 명으로 96천 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224천 명으로 63천 명(0.6%) 증가함.
- 2008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이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50.5%)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4월 중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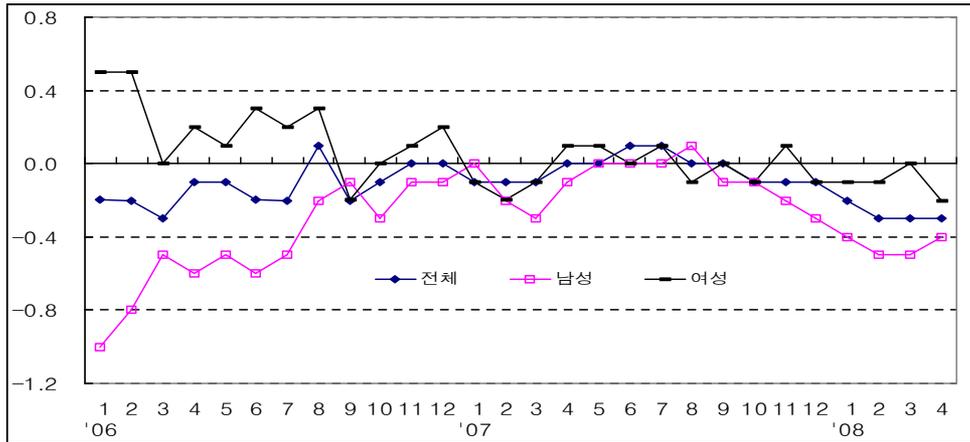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4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37 (1.0)	24,367 (1.1)	24,316 (1.0)	23,852 (0.7)	24,114 (0.6)	24,495 (0.7)
참가율	60.8	62.6	62.3	62.1	61.8	60.5	61.1	62.0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520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305 (0.8)	23,711 (0.8)
고용률	58.6	60.6	60.2	60.2	60.0	58.5	59.1	60.0
실업자	851	791	817	756	734	801	810	784
실업률	3.6	3.2	3.4	3.1	3.0	3.4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755 (1.1)	14,865 (1.0)	15,000 (1.3)	15,575 (1.8)	15,350 (1.8)	15,006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2008. 5.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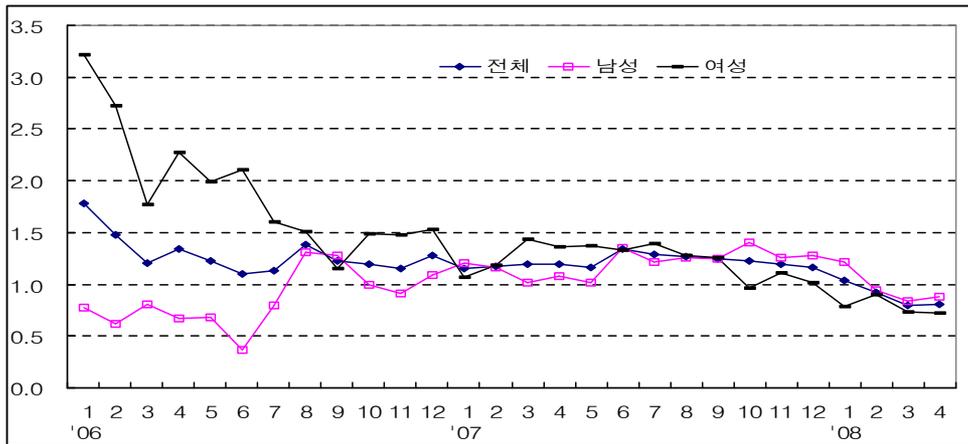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4월 중 취업자는 23,7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천 명(0.8%)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 명(0.9%), 여성 취업자는 9,9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0.7%)이 증가함.
 - 2008년 4월 중 실업자는 7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 명(-4.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4.6%)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2.8%)이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6%를 보였고, 여성이 0.1%p 하락한 2.6%를 기록함.
 - 2008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0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1천 명(1.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9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2.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1.2%)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1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 증가함.
-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182천 명(2007. 4)→1,376천 명(2007. 8)→1,247천 명(2007. 11)→1,404천 명(2007. 12)→1,316천 명(2008. 3)→1,192천 명(2008. 4)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

- 2008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3천 명, 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천 명, 0.5%)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8천 명, -0.8%), 농림어업(-44천 명, -2.4%), 제조업(-24천 명, -0.6%), 건설업(-22천 명, -1.1%)에서는 감소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모두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참조).

◆ 임시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08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4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 명(-1.4%)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2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4천 명(1.8%)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43천 명, 5.2%)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109천 명, -2.1%) 일용근로자(-40천 명, -1.7%)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나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4월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4월	4월				
전 산업	22,841 (1.2)	23,409 (1.2)	23,520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305 (0.8)	23,711 (0.8)
농림어업	1,450 (-2.8)	1,952 (-2.7)	1,807 (-2.3)	1,866 (-3.7)	1,690 (-3.8)	1,388 (-4.3)	1,555 (-3.6)	1,763 (-2.4)
제조업	4,138 (-1.2)	4,181 (-1.3)	4,124 (-1.5)	4,093 (-1.2)	4,120 (-0.9)	4,114 (-0.6)	4,100 (-0.5)	4,099 (-0.6)
건설업	1,772 (2.7)	1,904 (1.6)	1,932 (2.7)	1,843 (-0.3)	1,853 (-0.5)	1,754 (-1.0)	1,815 (-1.9)	1,910 (-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76 (-1.0)	5,708 (-1.1)	5,722 (-0.2)	5,723 (-0.3)	5,707 (-0.6)	5,682 (-0.8)	5,660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256 (4.8)	7,533 (4.4)	7,674 (5.2)	7,762 (5.0)	7,684 (4.4)	7,748 (4.3)	7,845 (4.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323 (3.3)	2,401 (3.5)	2,396 (2.5)	2,415 (1.8)	2,385 (0.9)	2,387 (0.8)	2,414 (0.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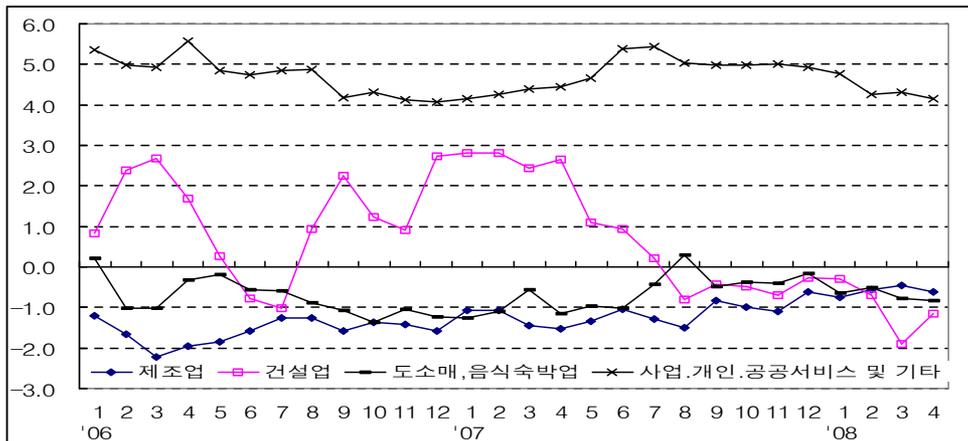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2008. 5.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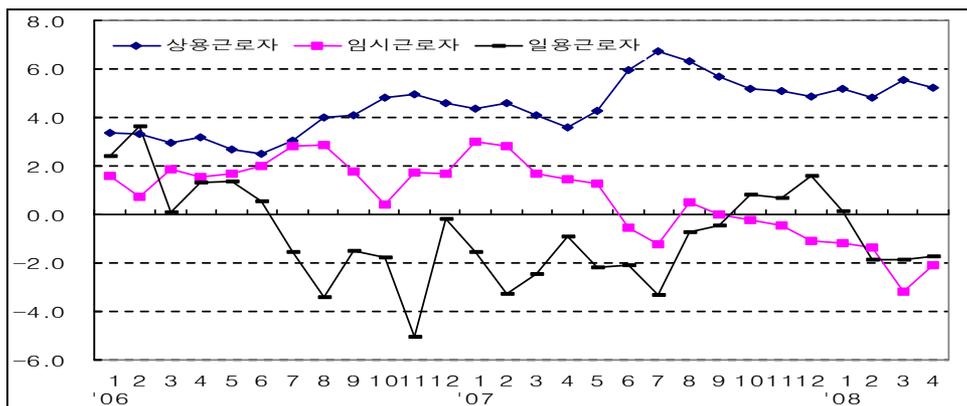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4월
전 체	22,841 (1.2)	23,698 (1.2)	23,520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3,305 (0.8)	23,711 (0.8)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56 (-0.9)	7,589 (-2.2)	7,426 (-1.8)	7,097 (-1.4)	7,311 (-1.1)	7,453 (-1.4)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076 (-1.3)	6,128 (-1.3)	6,035 (-1.4)	5,816 (-1.3)	5,936 (-1.1)	6,034 (-0.7)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80 (0.5)	1,460 (-5.9)	1,391 (-3.4)	1,281 (-1.8)	1,375 (-0.9)	1,419 (-4.1)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5,964 (2.2)	16,022 (3.0)	16,156 (2.6)	15,954 (2.0)	15,993 (1.7)	16,258 (1.8)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451 (3.6)	8,753 (6.2)	8,790 (5.1)	8,839 (5.2)	8,898 (5.5)	8,894 (5.2)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236 (1.4)	5,133 (-0.3)	5,156 (-0.6)	5,064 (-1.9)	5,023 (-3.2)	5,127 (-2.1)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277 (-0.9)	2,135 (-1.5)	2,211 (1.0)	2,051 (-1.2)	2,073 (-1.8)	2,238 (-1.7)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2,605 (-2.6)	3,962 (23.7)	2,549 (-5.1)	2,770 (-8.1)	2,641 (-4.8)	2,504 (-3.9)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20,679 (1.6)	19,227 (-2.4)	20,806 (2.2)	19,888 (2.6)	20,443 (1.8)	20,964 (1.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2008. 5.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 명(-3.9%)이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964천 명으로 286천 명(1.4%)이 증가함.

◆ 40대, 중졸 이하에서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

- 2008년 4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감소함.
 - 2008년 4월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대(-16천 명), 30대(-23천 명), 50대(-9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15~19세(1천 명), 40대(14천 명), 60세 이상(2천 명)에서 소폭 증가
 - 2008년 4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20대(7.4, -0.2%p), 30대(3.0, -0.4%p), 50대(1.9%, -0.3%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2%, 0.2%p), 60세 이상(1.2%, 0.1%p)에서 증가하였으며, 15~19세(7.9%,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4월
전 체	851(3.6)	791(3.2)	817(3.4)	756(3.1)	734(3.0)	801(3.4)	810(3.4)	784(3.2)
15~29세	346(7.6)	330(7.3)	345(7.6)	322(7.1)	312(7.0)	328(7.3)	333(7.6)	330(7.5)
30~39세	216(3.5)	203(3.3)	214(3.4)	189(3.0)	183(2.9)	193(3.1)	192(3.1)	191(3.0)
40~49세	151(2.3)	130(1.9)	136(2.0)	132(2.0)	126(1.9)	160(2.4)	162(2.4)	151(2.2)
50~59세	96(2.4)	95(2.2)	91(2.2)	80(1.9)	78(1.8)	83(2.0)	86(2.0)	82(1.9)
60세 이상	42(1.7)	33(1.2)	30(1.1)	34(1.2)	35(1.3)	38(1.6)	37(1.4)	32(1.2)
중졸 이하	150(2.8)	112(1.9)	116(2.0)	105(1.9)	109(2.0)	128(2.5)	126(2.4)	127(2.3)
고졸	426(4.2)	379(3.7)	387(3.8)	378(3.7)	372(3.7)	402(4.0)	365(3.7)	352(3.5)
대졸 이상	274(3.3)	300(3.5)	314(3.7)	274(3.2)	253(2.9)	271(3.1)	318(3.6)	305(3.4)
취업무경험실업자	40	40	40	44	40	44	45	48
취업유경험실업자	810	751	777	712	694	757	765	736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2008. 5.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줄 이하(11천명)에서는 증가한 반면, 고졸(-35천명), 대졸 이상(-9천명)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증줄 이하(0.3%p)에서는 증가한 반면, 고졸(-0.3%p), 대졸 이상(-0.3%p)에서 모두 감소함.
- 2008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78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36천 명으로 40천 명 감소했음.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

- 2008년 4월 27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함(표 7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23건으로 전년동기(20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195,463일로 전년동기(144,727일)대비 285.3% 증가함.

◆ 전경련,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지름길

- 경제계는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존 근로자 보호정책의 완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활용 등 근로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전경련은 최근 노동부가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2007. 5. 27	2008. 5. 27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20	23
근로손실일수(일)	144,727	195,463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2008년 1월 1일~5월 21일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함.
- 또한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 전경련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요건 완화 등 기존 근로자 과보호 완화, 법정퇴직금 임의화 등 임금제도와 근로시간의 경직성 완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지적함.

◆ 경총,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이양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경총은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 고용보험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은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관리하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재정건전성, 사회보험의 국가관리,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 등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보험의 주체인 노사는 물론 각계 전문가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

◆ 노동계, 최저임금제도 추진관련 지식경제부 입장에 대한 입장 발표

- 재계는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함.
 - 현행 최저임금법은 1994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 왔음.
 -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늘려 임금체계를 왜곡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함.
- 최근 지식경제부의 최저임금 추진방향, 즉 판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을 적시하여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상당기간 최저임금 동결·삭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함.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목표라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비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도 최저임금도 제외시켜 단일화시키면 최저임금=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등에 유리
 - 통상임금 비중 확대 및 상여금 비중 축소로서 한국의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통상임금만으로는 도저히 한 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지식경제부가 진정으로 글로벌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통상임금 비중 확대·상여금 비중 축소부터 주장해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은 경총과 전경련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회원국 중 8위인 현실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고 주장함.
 - 민주노총은 2009년 주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함. **ㄱㄴ**